

바이오매스, 사과 · 포도에서도 추출

농촌진흥청, 연간 잠재발생량 1164만톤 달해 ... 67%가 벼에서 발생

국내 농업에서 바이오매스(Biomass)의 잠재발생량이 1164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주요 농작물 26종을 대상으로 지역, 품종, 기후 등 환경요인을 최소화한 바이오매스 환산 계수를 개발해 잠재발생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1164만톤, 460만TOE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2월26일 발표했다.

벼 부산물인 벃짚이 전체 발생량의 56.7%인 659만8700톤, 왕겨가 9.8%인 114만6400톤으로 집계돼 전체 바이오매스의 66.5%가 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부산물인 고춧대 줄기는 8.6%인 100만3000톤을 기록했으며, 과수 중에는 사과가 5.3%인 61만9700톤, 포도가 4.5%인 52만1100톤의 바이오매스 잠재발생량을 기록했다.

이밖에 들깨, 콩, 고구마, 옥수수, 감자도 줄기와 깍지 등 부산물이 바이오매스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매스는 동물과 식물, 미생물의 유기물 총량으로 직접 연소시키나 열분해 혹은 발효과정을 통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뜻한다.

농진청 기후변화생태과 박우균 연구관은 “농업 바이오매스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 수집이 힘들고 발생량 예측도 어려웠다”며 “발표된 잠재발생량 추정치가 앞으로 농업 부문 바이오매스의 활용 방안과 산업적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7>